

教藏의 書名에 대한 試考

- 智者大師 著述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Titles in JiaoZang

- Based on the Works of the Great Monk, Zhizhe -

徐大源 (Suh, Dae-won)*

◁ 목 차 ▷

- | | |
|-----------------------|---------------|
| 1. 引 言 | 3.1 지자대사 저술고 |
| 2. 교장 형태 및 중국주석사 소고 | 3.2 智者 著述 書名考 |
| 2.1 ‘論藏’과 ‘教藏’의 형태 분석 | 4. 結 言 |
| 2.2 中國 注釋 小史 | <참고문헌> |
| 3. 智者大師 著述 書名考 | |

< 초 록 >

본 논문에서 ‘教藏’은 고려 대각국사 義天의 ‘諸宗教藏’을 지칭하며, 교장에 보이는 서명을 고찰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표로 한다. 단지 교장은 1,010부의 저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논문에서 전체 서명을 고찰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그 일부인 교장에 보이는 天台 智者大師의 저작만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① 교장을 따로 분류하는 이유: 엄격하게 말하면, 불교의 분류법상 교장은 論藏(abhidharma-pitaka)에 포섭될 것이나 문헌의 물질적인 형식이나 서술방식이 인도의 논장과 상당히 이질적이다. 이런 이유로 교장은 방편상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 ② 서명의 유래: 서명을 고찰해 보면, 인도 전통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전통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 주석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서명뿐만이 아니라 서술방식도 그러하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 중국 지식인이 예상되는 독자였기에 그럴 것이다.
- ③ 남북을 포섭하다: 이것은 교장의 특징이 아니라 지자대사 저작의 특징이다. 지자대사는 남북조에서 수의 통일 시기까지 활동하던 인물이다. 이런 이유로 그의 저작에는 남북조와 북조를 모두 아우르는 그리고 통일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要語: 諸宗教藏, 智者大師, 書名, 論藏(abhidharma-pitaka), 中國註釋史

* 충북대학교 장의융합교육본부 부교수(dayuans@hanmail.net)

접수일: 2016년 9월 6일 최초심사일: 2016년 9월 12일 심사완료일: 2016년 9월 23일

<ABSTRACT>

In this paper, 'JiaoZang(教藏)' refers to Monk Daegak's 'ZhuZongJiaoZang(諸宗教藏)' during the Goryeo period. This study is targeted to investigate titles in JiaoZang. Since it contains a total of 1,010 writings, it is irrational and not possible to review all titles in brief reports. Therefore, this study decided to examine Great Monk ZhiZhe(智者)'s writings only. The study results found the followings:

1) Reasons why JiaoZang is separately classified;

Strictly speaking, according to the Buddhist taxonomy, JiaoZang belongs to LunZang (Abhidhamma Pitaka). However, it greatly differs from LunZang in India in terms of the literature form or description method. In this sense, it had been needed to classify JiaoZang separately.

2) Origin of title;

According to review on titles, they are close to Chinese tradition, not to Indian tradition. In other words, they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history of Chinese commentaries. This pattern is found in the method of description, as well as in titles because it appears that Chinese intellectuals were the readers at that time.

3) Covering the south and north;

This is not the characteristics of JiaoZang, but it is found in Great Monk ZhiZhe's writings. Great Monk ZhiZhe is a figure who lived from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to the reunification under the Sui Dynasty. Therefore, his writings reveal an intention of unification, covering both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Key words: ZhuZongJiaoZang, Great Monk ZhiZhe, Title,
LunZang(論藏: Abhidhamma Pitaka),
History of Chinese Commentaries

1. 引 言

논문 제목에서 말하는 ‘敎藏’은 고려 대각국사 義天의 ‘諸宗教藏’을 지칭한다.¹⁾ 알려진 바에 의하면, 1,010부에 이르는 방대한 문헌이다. 이것은 ‘諸宗教藏’이란 이름이 의미하는 바대로 불교 여러 종파의 ‘敎藏’의 총집을 지칭한다. 물론 대각국사의 ‘敎藏’은 당시 시대적 한계와 현실적 이유 등으로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志向’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고 완성도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敎藏’이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佛敎三藏’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三藏’이란 세 가지 ‘藏’이란 의미이다. ‘藏’은 범어 pitaka의 역어로서 본래는 ‘바구니’라는 의미이다. 즉 경전을 간직하는 바구니이다. 그렇다면 ‘三藏’이란 불교 문헌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經藏(sūtrānta -pitaka) · 律藏(vinaya -pitaka) · 論藏(abhidharma -pitaka)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은 경전, 률은 계율, 논문은 논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敎藏’은 무엇인가? 불교 여러 종파의 주석서 및 교리서 등을 결집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敎藏’은 ‘佛敎三藏’ 이외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기존의 연구서에 특별한 설명은 없는 듯하다.

필자가 보기에 다음과 같은 답변이 가능할 듯하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응당 論藏(abhidharma -pitaka)에 포섭이 될 것이다. 단지 방편상 제4장으로 분류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것은 불교 정통적인 논장과 의천이 결집한 ‘敎藏’ 간에는 적지 않은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룰 생각은 없다. 단지 그 일부를 보이고자 한다.

1)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敎藏’을 의천 ‘諸宗教藏’의 약칭으로도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도 의천 ‘諸宗教藏’의 약칭으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이 두 문헌, 論藏과 敎藏의 이질성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이것은 매우 여러 각도에서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두 가지는 비교적 쉽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두 문헌의 형식이다. 즉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질적 차이이다. 둘째, 논의의 방식이다.

이 중 논의의 방식을 쉽게 알려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書名’이다. 왜냐하면 ‘書名’에는 적지 않은 논의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위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 좀 더 부연 설명해야 할 것과 현실적 이유에서 논의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불경 이외 불교서적의 이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²⁾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試論的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이 이외,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의천국사의 ‘敎藏’에는 1,010부의 저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저술을 살펴본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이것은 소논문의 주제로 적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논의의 소재를 제한하고자 한다. 즉 ‘敎藏’의 중요한 일부분인 천태저술 그 중에서도 智者大師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의천대사는 한국 불교사에서 보면 천태종의 중흥조에 해당하며 ‘敎藏’에서 천태저서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응당 지자대사의 저서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본 소고에서는 지자대사의 저서를 중심으로 ‘敎藏’의 형태적 특징 및 서명 등을 살펴보겠다.

2) 물론 각 장품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작품 안에 제목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해제 혹은 논문 등을 통해 서명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도 있다. 단지 불서들의 명칭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2. 교장 형태 및 중국주석사 소고

우리의 연구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앞서 교장의 형태와 지자대사 당시까지의 중국 주석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2.1 ‘論藏’과 ‘教藏’의 형태 분석

잠시 ‘論藏(abhidharma -pitaka)’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논장은 “阿毗達磨藏” 등으로 音譯되고 “對法藏”이라고 意譯된다. 불경에 대해 논의하고 간략한 것을 자세히 해설하여 “諸法の性相”을 ‘決擇(nairvedhika)’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불교 교설을 해석하고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불경을 논의하고 해석하는 것이다.³⁾ 요약해 보면, 불경에 보이는 법상을 보다 쉽고 자세하게 해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단어를 좀 더 음미해 보자. ‘決擇’이란 “선택하여 결정한다.”라는 의미이다. 이런 이유로 반드시 해설은 의론을 겸할 수밖에 없다. 법에 대한 것이기에 “abhidharma -pitaka”라 하였을 것이며 결택이라는 의론이기에 “論藏”이라 번역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논장은 ‘불교삼장’에서 一藏을 점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독립되어져 있으며 그 지위도 존귀하다.”

우리는 논장의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두 개 ‘大論’의 형태를 살펴보자. 『大智度論』은 반야경을 해설한 공중계열의 대표전인 논서이다. 그래서 공중계열에서는 이것을 ‘大論’이라 부른다. 우선 제목만 보아도 ‘論藏’에 속하는 문헌임을 알 수 있다.

『瑜伽師地論』은 유식계열의 대표적인 논서이다. 물론 ‘論藏’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유식 계열에서는 이 논서를 ‘大論’이라 부른다.

3) 決擇(nairvedhika)은 본래 無漏聖智로 여러 의심들을 결단하고 갈택하는 것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의리 등의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음을 簡別하거나 의문 나는 부분들을 단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각 종파에서는 宗義決擇을 하였다. 종의에 대한 확립을 말한다.

그런데 이 두 문헌을 형태적으로 살펴보면, 經藏(sûtrānta -pitaka) · 律藏(vinaya -pitaka)의 문헌들과 큰 차이가 없다. 즉 거의 차별이 없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것은 최소한 형식상 經藏(sûtrānta -pitaka) · 律藏(vinaya -pitaka)과 큰 차별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論藏’에 대한 인식 및 지위에 대한 인도 불교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 『瑜伽師地論』의 안에는 『解深密經』이 그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解深密經』은 물론 ‘三藏’의 분류에 의하면 經藏(sûtrānta -pitaka)에 포섭될 뿐만 아니라 유식학의 所依經이다. 즉 유식학 내부에서 극도로 존귀한 위치에 있는 ‘佛經’이다.⁴⁾

그렇다면 이견 매우 이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瑜伽師地論』의 안에서 『解深密經』 부분과 그 이외 부분에 있어서 형식상 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教藏’에 보이는 일반적인 문헌 형식을 살펴보자. 물론 앞의 ‘論藏’처럼 일반적인 서술로 된 문헌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중국 전통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注疏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즉 佛言인 ‘佛經’ 부분과 그 이외의 ‘論議’ 부분이 시각적으로도 바로 구별이 될 수 있는 방식이다. 대부분 큰 글자로 불경 부분이 되어 있으며 한 단을 내리고 작은 글자로 ‘論議’ 부분이 처리되어 있다.

만일 한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중국의 일반 경전 주석과 불경의 경전 주석은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비교적 자명하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의 불경 해설 방식은 중국의 전통적인 주석 형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그 서술방식 등이 ‘論藏’의 전통이라기보다는 중국 전통 주석의 형식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형식’을 보면

4) 현재의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심밀경』이 경이 아니고 후대에 작성된 논서라고 본다. 사실상 金口佛說만을 ‘經’으로 정의할 경우 대승경전은 마찬가지로 경이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유식학과 혹은 전통불교에서 『해심밀경』은 경으로 인식되었었다는 점이다.

더욱 그러하다.⁵⁾

그렇다면 ‘敎藏’의 서술 특징 등을 알기 위해서는 중국 전통의 주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중국에서 불경의 경소에 대한 형태가 이루어지는 당대까지의 중국 주석사는 직접적이고 깊게 불경 주석의 형식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⁶⁾

2.2 中國 注釋 小史

중국의 주석사는 장구하다. 우선 중국의 주석은 선진시기 이미 시작되었다. 『莊子』의 일부 편을 보면 『老子』를 해설하고 있고, 『禮記』에는 공자 등의 언설을 설명하고 있고, 『韓非子』에는 전문적으로 『老子』를 해석하는 ‘解老’, ‘喻老’ 두 편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趙岐에 의하면 선진 시기 이미 적지 않은 『孟子』注가 있었다고 한다.⁷⁾ 즉 아주 일찍부터 주석하는 전통이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우선 한 가지에 주목해 보자. ‘經傳’이라 할 때 ‘傳’의 의미이다. ‘傳’은 본래 ‘해설하다.’라는 의미이다. 즉 경을 설명하는 글이다. 원래에는 ‘經’과 ‘傳’은 독립적으로 통행되었다. 그리고 책의 크기도 經은 크고 傳은 작았다고 한다. 그것은 經·傳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⁸⁾

현재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周易』의 『繫辭傳』과 같은 전이다. 그 내용을 보면 『周易』을 총괄 해설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내용을 중심으로 살핀다면 불교 ‘論藏’의 ‘論書’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傳’은 내용 중심의 해설서라

5) 물론 인도나 서역의 영향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 불경에는 일반적으로 變相圖라는 것이 있다. 불교의 이야기나 상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불경에는 이 변상도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논서에도 가끔씩 보인다. 이것은 중국의 전통이 아니라 전래되어진 전통의 반영이라 보아야 한다. 이 이외 또 한 가지를 든다면 科文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의 ‘章句’와 유사한 의도로 보이지만 중국에는 없던 방식이다. 이런 것들은 중국 전통과 다른 점들이다.

6) 사실상 당대 이후에도 불서들은 대체로 끊임없이 중국 당대의 영향을 받는다. 이 부분은 후일 다시 하나의 주제로 다루겠다.

7) 엄영봉에 의하면 선진에 이미 적지 않은 『老子』 주석도 있었다고 한다.

8) 물론 중요성의 차이도 반영하는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처음부터 ‘經’과는 외형을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⁹⁾

두 번째 살펴보아야 할 것은 漢代 ‘章句之學’이다. ‘傳’은 일반적으로 내용 해설을 중심으로 하지만, 선진과의 시간적 거리가 멀어지고 사회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고대의 문헌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 내용뿐만 아니라 ‘문장의 시작과 끝’, ‘문단’, ‘단어’ 등 자체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점에 감안하여 유행하게 된 것이 바로 漢代 ‘章句之學’이다. 주된 내용은 ‘分章分句’를 해주고 글자나 단어에 대해 독음이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즉 ‘傳’과는 다른 전통이라 할 수 있다. ‘傳’에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分章分句’나 어휘해설이 있지만 그 중점은 ‘내용해설’이라 할 수 있다.

‘章句之學’의 형태적 특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각 구절 밑에 ‘注’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經’과는 글자 크기도 다르다. 현재 漢代 문헌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없지만 이미 經文과 注文은 위에 空格을 두거나 글자의 크기는 어떤지 등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 ‘尊經’ 혹은 ‘尊聖’의 의식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며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연원을 살펴보면 앞에서 설명한 經·傳의 차별에서 기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⁰⁾

‘章句之學’은 선진언어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나무를 자세히 살필 수 있지만 숲을 鳥瞰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漢末에 이르러 이러한 ‘章句之學’은 새로운 지식인들에게 천시되고 ‘내용[通]’¹¹⁾을 파악하는 것을 중시하는 풍조가 발전하게 된다. 이것을 ‘玄學’ 혹은 ‘清言’이라 한다.

이와 같은 형식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꼽자면 郭象의 『莊子注』를 들 수 있다.

9) 현재 『周易(혹은 『易經』)』을 보면 經과 傳이 함께 있으며 형식상 크게 차이가 없다. 『주역』 현재 형태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설이 분분하지만 한대 이후에 이런 형태가 있다는 점에는 이설이 없고, 『주역』에 있어 형식상 차이가 사라진 것은 『易傳』이 공자 작품이라는 전승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聖經賢傳’의 입장에서 보면 『易傳』은 經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10) 즉 尊經의식이 물질적인 형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1) 전체의 논의 및 논리를 모순 없이 보여주는 것.

비록 『莊子』 『내편』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각 편의 앞에 각 편의 大義를 闡明하고 있다. 이것은 비교적 전형적인 ‘通’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의 주석을 보아도 이전의 ‘章句之學’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체를 고려하며 내용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躍如하다.

여기에서 잠깐 불교의 작품을 살펴보자면, 僧肇의 『肇論』을 주석의 관점에서 보자면 반야부에 대한 일종의 ‘通’이라 볼 수 있다. 즉 그 형식 등을 볼 때, 論藏의 전승 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위진 시기 ‘玄學’ 혹은 ‘淸言’의 전통 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¹²⁾

좀 거칠게 이런 변화를 설명하자면 ‘章句之學’에서 ‘義學’으로의 변화이다. ‘章句之學’은 名物訓詁를 중시하고 ‘義學’은 ‘義理’를 중시한다. ‘義理’는 ‘隨文釋義’의 방식으로 가능하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근원을 고려해 본다면 ‘繫辭傳’은 『易經』에 대한 독립적인 ‘通’이라 할 수 있고, 『大學』은 유학 체제규모에 대한 독립적인 ‘通’이고 『中庸』은 유학 형이상학에 대한 독립적인 ‘通’이라 볼 수 있다. 즉 ‘通’은 선진 시기 ‘傳’의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漢代에서 魏晉時期를 거쳐 중국의 중요한 고전들은 상당 부분이 주석이 된다.¹³⁾ 이 이후 남북조를 거치며 서서히 ‘疏體’가 유행을 하게 된다. ‘疏’란 본래 ‘疏通義理’란 의미이다. 좀 더 부연하자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등에 대해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疏體’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미 위에서 설명한 ‘通’의 연장선상이다. 사실상 ‘疏通義理’란 ‘不通’ 혹은 ‘難通’으로 보이는 부분을 ‘通(즉 疏通)’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疏’란 기본적으로 ‘義疏’란 의미일 뿐 아니라 ‘義疏’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12) 필자가 보기에 조론은 기본적으로 ‘通’이라는 한말 위진의 전통 위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구사되는 문답 등은 비교적 전형적인 淸言의 형식이다. 그러므로 論藏의 전승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보다 濃厚한 것은 한말위진의 학문경향과 서술방식이다. 또 여기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이미 특정한 반야경을 벗어나 ‘通’의 방식으로 반야사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13) 물론 현재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다 할 수 있을 것이나 당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것들은 대부분 주석이 된다. 여기에서 주석은 注와 章句를 포함한 것이다.

둘째, 이미 말하였듯이 많은 고전들이 ‘章句’, ‘訓詁’, ‘注’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에 經文과 注文의 난해처를 해설하는 방식의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였다. ‘疏體’는 남북조시기에 유행을 하기 시작하여 唐代에는 경전주해의 대표적인 방식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注疏體 즉 經文- 注 - 疏의 형식이 이것이다. 단지 반드시 注가 있어야 疏가 있는 것은 아니다. 疏는 義疏이고 그것은 ‘疏通義理’란 의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隋·唐代에 이르러서는 ‘疏體’가 대세를 점유하면서 일종의 주석서의 대명사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듯하다. 즉 주석을 지칭하는 대표 명사라고 볼 수 있다.¹⁴⁾

3. 智者大師 著述 書名考

이미 앞에서 서술한 대로, 본고에서는 ‘諸宗教藏’ 중에서天台의 智者大師 著述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3.1 지자대사 저술고

우선 천대 저술을 살펴보자.

번호	교장명(고산사본)	灌頂『別傳』기재명	『大唐內傳錄』기재명
1	法華文句	法華文句	法華疏
2	法華玄義		法華玄
3	摩訶止觀	圓頓止觀	圓頓止觀
4	觀音品玄義		
5	觀音品義疏		

14) 이런 이유로 疏에는 자연스럽게 ‘訓詁’, ‘讀音’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물론 ‘의미해설’, ‘의리 분석’ 등이 중점임은 부정할 수가 없다.

번호	교장명(고산사본)	灌頂『別傳』기재명	『大唐內傳錄』기재명
6	金光明經玄義		
7	金光明經文句		
8	觀無量壽(佛)經疏(?)		
9	禪波羅蜜	次第禪門	禪波羅蜜門
10	六妙門禪法	六妙門	六妙門
11	小止觀	小止觀	小止觀
12	略明開嚀初學坐禪止觀要門		
13	請觀音經疏		
14	(維摩經)玄義		
15	(維摩經)玄論		
16	維摩經疏	淨名經疏	維摩經疏
17	法界次第	法界次第章門	法界次第章
18	四教義		四教義
19	四念處		
20	觀心論		觀心論
21	方等行法		大方等行法
22	覺意三昧	覺意三昧	覺意三昧
23	禪門口訣		
24	三昧儀	法華三昧行法	法華三昧
25	圓教六卽		
26			三觀義
27			四悉檀義
28			如來壽量義
29			般舟證相行法
30			請觀音行法
31			南岳思禪師傳

※ () 안의 내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기입한 것이다.

우선 위의 표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제일 앞의 것은 물론 본 논문의 주제인 교장총목의 書名이다. 두 번째 것은 지자대사의 제자인 灌頂이 저술한 別傳에 전하는 자료이니 최초의 자료로 볼 수 있고 가장 신뢰성이 높을 것이다. 단지 위의 자료는 別傳이 쓰여질 당시 완성된 작품에 한할 것이다. 세 번째 것은 唐代的 기록이다. 시간적 거리 등을 볼 때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을 것이나 일부 서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존재한다. 단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書名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修習止觀坐禪法要』,¹⁵⁾ 『法界次第』, 『三昧儀』, 『六妙門禪法』, 『覺意三昧』와 『維摩經疏』의 일부분만이 智者大師 親作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제자인 灌頂이 筆記한 것이다. 단지 여기에서 말하는 ‘筆記’는 단순히 ‘기록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리·편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書名 제정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지자대사인지는 아니면 灌頂인지 그도 아니면 제3자인지 하는 문제이다.

둘째, 이미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동일한 문헌에 대한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略稱과 全稱의 차이인지? 아니면 본래 복수의 書名이 존재하는 것인지? 후일 수정된 것인지? 등등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고찰해 보면 매우 복잡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찰하지 않고 書名의 대략을 고찰할 것이다.

그럼 위의 표를 살펴보자.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義天의 ‘諸宗教藏’에 실린 문헌을 보면 사실상 중국 대장경 등에서 말하는 ‘東土著述’과 그 내연과 외연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견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미 앞에서 말하였듯이 注疏 등의 문헌은 三藏의 입장에서 보자면 論藏에 포섭된다 할 수 있지만 그 형식과 특징이 相異하므로 따로 항목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諸宗教藏’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둘째, 義天의 ‘諸宗教藏’에 入錄된 문헌은 당시 義天이 구할 수 있는 문헌으로 한정되어 있다. 물론 義天 이후 생산된 문헌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문헌 중에서도 당시 여건상 구할 수 없는 문헌도 入錄되어 있지 않다.¹⁶⁾ 필자가 보기에 義天이 이미 위에서 말한 대로 東土 諸宗의 저술 중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념적으

15) 『略明開嚵初學坐禪止觀要門』에 해당할 것이다.

16) 지자대사의 저술 중에도 제종교장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로 살펴본다면 義天의 ‘諸宗教藏’의 외연은 東土 諸宗의 모든 문헌이라고 보아야 할 듯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諸宗教藏’의 서명 및 서지적 특징은 대체로 ‘諸宗教藏’만의 특징이 아니라 동토저술의 일반적 특징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義天의 ‘諸宗教藏’만을 말한다면 시간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義天(1055-1101) 생존 당시까지의 문헌의 특징을 말할 것이다.

3.2 智者 著述 書名考

天台 저술은 당시 일반적인 불교 저술들과 유사성과 함께 다른 점도 보인다. 만약天台 智者大師 및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한다면¹⁷⁾ 그것은 물론 중국의 남북조 후기로부터 수대 및 당대 초기까지의 저술 풍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3.2.1 ‘文句’와 ‘玄義’

필자가 보기에 천대 지자대사 저술의 가장 눈에 들어오는 특징을 꼽으라면 의당 ‘玄義’와 ‘文句’라는 저술명일 것이다. 천태종을 대표하는 저술이라 할 수 있는 소위天台三大部는 『法華文句』, 『法華玄義』, 『摩訶止觀』을 지칭하는데 이 중 이미 ‘文句’와 ‘玄義’란 서명이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金光明經文句』, 『金光明經玄義』도 있고 만일 유사한 것까지 보자면 『觀音品玄義』, 『觀音品義疏』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智者大師는 중요 불경에 대해 ‘文句’와 ‘玄義’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설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먼저 ‘文句’에 대해 살펴보자. ‘文句’는 아마도 ‘文字名句’와 같은 의미로서 단어와 구절을 지칭할 것이니, 본래는 범어의 범자¹⁸⁾와 단어 그리고 문장

17) 지자대사의 문헌들은 대부분 제자들의 손을 거쳐 세상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18) 영어로 치면 알파벳에 해당.

과 구절을 지칭하겠지만 표의문자인 한문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곤란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文句’는 기본적으로 어휘¹⁹⁾와 구두를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注疏名에 사용한 ‘文句’는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法華文句』 등 文句類의 저술을 보면 바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즉 경전의 글에 따라 단어와 문장 구두 등을 설명한 방식이다. 비록 그 이름은 ‘文句’이지만 사실상 중국 전통 주석사의 입장에서 보면 ‘章句’와 큰 차별이 없다. 아마도 ‘章句’란 명칭이 너무 중국적이며 당시 ‘章句之學’을 폄하하는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명칭을 ‘文句’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즉 불경의 원문에 따라 名物訓詁에 해당하는 法相과 단락 등을 중심으로 해설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보충 설명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본래 章句는 經傳의 장구를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경문과 함께 있는 것이 편리하다. 단지 『法華文句』를 보면 원문을 넣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자대사가 『法華經』을 보며 강의한 강의내용을 筆記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둘째, 章句는 물론 法相이 중점을 이룬다. 이것은 義理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漢代 章句를 보아도 그러하다. ‘文句’에도 의리가 배제되지 않는다. 단지 중심이 ‘文句’일 뿐이다.²⁰⁾ 그리고 시대도 남북조 후기 이후의 작품들이니 漢代보다는 의리에 대한 배려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章句’의 방식이 ‘文句’라는 방식으로 변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玄義’에 대해 살펴보자. ‘玄義’는 문자 자체부터 매우 중국적이고 전통적이다. 의미는 ‘심오한 義理’이다. 당시 중국에 유행하고 있던 ‘義學’²¹⁾의 분위기가 농후하다. 더욱이 ‘玄’은 漢末以來 줄곧 ‘심오함’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이다. 漢末以後 심오한 의리학을 ‘玄學’이라 부른다.

그 題名에 걸맞게 ‘玄義’의 내용은 단어나 구절 풀이가 중심이 아니라 通篇奧

19) 여기에서 어휘는 한 글자로 이루어진 개념과 복수의 글자로 이루어진 개념 모두를 지칭한다.

20) 이것은 후술될 ‘玄義’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21) 즉 義理之學

義를 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法華玄義』를 예로 들어보자.

『法華玄義』는 기본적으로 通釋과 別釋 및 五重玄義로 되어 있고 그것을 藏教·通教·別教·圓教로 정리하며 縱橫無盡의 방식으로 전체를 서술하고 있다. 읽기가 매우 어려운 문헌이지만 우선적으로 『法華經』의 전체 체계를 천명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法華經』의 哲理에 대한 闡釋을 통해 전 불교 더 나가 전 우주를 설명하려는 야심이 보이는 작품이다.

이미 題名인 ‘玄義’에서 보이듯이 이것은 漢末 이후 ‘通’의 전통 위에서 서 있음을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보다 근원을 탐구한다면 선전 ‘傳’의 전통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²²⁾ 물론 이것은 인도의 ‘論藏’의 전통과도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의 체계를 종횡무진으로 막힘없이 서술하는 방식인 ‘通’의 전통에 강하게 기반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維摩經』에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방식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자대사의 『維摩經』 관련 서술은 『維摩經玄疏』와 『維摩經文疏』로 나눈다. 그 서명에 약간의 출입이 있는데 이 중 ‘玄疏’를 ‘玄義’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 『維摩經玄疏』는 『維摩經疏』라고도 부른다. 이 중 현소의 일부 글을 보자.

이 경전(『維摩經』을 지칭)의 이치는 심원하고 의미는 깊으며 오묘하다. 만일 단지 경문에 따라 해석을 넣는다면 단지 (불교) 名相(을 해설하는데)²³⁾ 그치게 될까 염려가 된다. 한 가르침의 궁극적인 의미는 응당 헤아리기 어렵다. 그래도 대략이나마 幽微(한 내용)을 헤아려서 불가사의한 가르침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경문 (해설의) 앞에 五重玄義를 찬술한다.²⁴⁾

여기에서 智者大師의 생각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위 번역문 중 “단지

22) 『역경』과 『계사전』 등의 관계를 보라.

23) 원문은 ‘事數’이다. ‘事數’는 ‘名數’와 같은 의미이니, 名相이란 의미이다.

24) 『維摩經玄疏』 卷一. 此經理致深遠.

“言旨淵玄. 若但依文帖釋, 恐止事數而已. 一教終極終自難量, 猶須略付幽微, 顯不思議旨趣. 今輒於文前撰五重玄義.”

경문에 따라 해석을 넣는다면 단지 (불교) 名相(을 해설하는데) 그치게 된다[但依文帖釋, 恐止事數而已]”는 것은 ‘文句’에 해당할 것이다. 단지 이 ‘文句’의 방식으로는 ‘심원한 이치’와 ‘깊고 오묘한 말의 뜻’을 알 수 없어서 그 불가사의한 의미를 천발하고자 한다는 의미이다. 즉 ‘玄義’에 해당할 것이다. 뒤의 “五重玄義를 찬술한다[撰五重玄義.]”에 그의 어휘선택의 의도와 撰文하게 된 의도를 모두 알 수 있다. ‘不可思議’가 바로 ‘玄’이다.²⁵⁾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 가지를 살펴보자. 후일 불교 문헌에서 유행하는 ‘玄談’ 등과의 관계이다. 혹은 독립된 저서로 ‘玄談’ 혹은 玄字書名을 가진 문헌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본경 해설의 앞에 놓이게도 된다. 그래서 혹자는 ‘玄’은 ‘懸’의 통가자라고 하며 사실상 ‘懸談’ 등의 명칭이 사용되게도 된다.

단지 필자가 보기에는 모두 이 ‘玄義’와 문헌체제상 혈연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여러 가지 변용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 ‘玄義’와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⁶⁾

3.2.2 ‘疏’와 ‘義疏’

이미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疏’와 ‘義疏’는 남북조 시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당대에 이르러 극성기를 이루는 주석 방식이다. ‘疏’의 본래 의미는 “通其難通”

25)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위 인용문의 “지금 경문 (해설의) 앞에 五重玄義를 찬술한다[今輒於文前撰五重玄義.]”를 근거로 보면 본래 의도는 『維摩經文疏』와 별개로 찬술된 것이 아니라 『維摩經文疏』의 前言 쪽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서술된 듯하다. 단지 현재에는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이 이외 고산사본 교장총목에 의하면 玄義(6권)·玄論(7권)이 보인다. 즉 지자대사의 작품 중 『維摩經玄義』(6권), 『維摩經玄論』(7권)이 『維摩經疏』 이외에 존재하였다는 의미이다. 현존 『維摩經玄疏』는 6권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교장총목에서 말하는 『維摩經玄義』(6권)와 같은 계열이 아닐까 추정된다. 문제는 『維摩經玄論』(7권)이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책인지 아니면 동일계열의 이본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다.

26) 그러나 각 종파가 주장하는 ‘玄’의 내용은 각기 다르다. 그리고 후일 중국에서 의리학의 쇠퇴와 함께 ‘捨經自作文’의 방식에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하며 불교에서도 이런 서술의 방식이 쇠퇴하는 듯하다.

혹은 “疏通疑難”의 의미로서 경문을 해설하기도 하고 注文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十三經注疏의 ‘疏’는 기본적으로 注文을 대상으로 한 해설이다.

그런데 이 十三經注疏는 宋代에 이르러 완성된 것으로 그것은 본래 당대의 ‘五經正義’를 뿌리로 하고 있다.²⁷⁾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당시 ‘疏’를 ‘正義’ 등의 이름으로도 사용하였으며 이 둘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점은 漢末以後 중국 학술사의 변천을 큰 흐름에서 보자면 훈고 중심에서 의리 중심으로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당시 유행하는 ‘疏’는 대체로 ‘義疏’의 경향을 띤다.²⁸⁾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疏’와 ‘義疏’는 대체로 같은 의미이다. ‘義疏’는 의리중심의 해설임을 좀 더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자대사의 저술을 보면 이런 당시 흐름에 同參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3.2.3 其他 智者 著述名

이 이외 지자대사의 저술의 이름은 대체로 평범하다고 볼 수 있다. ‘義記’, ‘法門’, ‘章’, ‘論’ 등의 이름 이외에는 논의 주제를 書名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摩訶止觀』, 『法界次第』 등이다. 우선 서명이 약칭으로 된 것도 있어 全稱이

27) 여기에서도 疏는 의리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義疏이다.

28)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 疏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29) 필자가 보기에 당시의 ‘疏’는 일반적으로 ‘義疏’의 성격을 띠지만 ‘強調’의 측면에서 볼 때 심오한 의리의 闡釋이란 각도에서 보면 疏<義疏<玄疏가 될 것이다. 그래서 ‘玄疏’는 ‘玄義’와 유사한 의미로도 사용되는 듯하다. 이런 점은 앞에서 살펴본 『維摩經』과 관련된 저술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인 주석이라 할 수 있는 『維摩經疏』 혹은 『維摩經文疏』라 부르고 심오한 의리 친술이라 할 수 있는 해설서는 『維摩經玄疏』, 『維摩經玄義』, 『維摩經玄論』(?) 등으로 부른다. 단지 이 書名 中 본래 서명에 대한 고찰과 서명 부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지자대사는 위와 같이 심오한 의리의 闡釋이란 각도에서 보면 疏<義疏<玄疏가 될 것이다. 그래서 ‘玄疏’는 ‘玄義’와 유사한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하는 주장을 가설로 주장한다.

무엇인지를 확정해야 하며 초기 서명 부가자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書名은 주제 중심이라는 것을 쉽게 살펴볼 수 있으며 보다 긴 이름으로 통행되는 서명은 그것이 全稱이라면 ‘主題 + 서술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義記’, ‘法門’, ‘口訣’, ‘論’을 살펴보자.

‘義記’는 敎藏 안의 『梵網經義記』가 보인다. 이 문헌은 지자의 저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단지 ‘義記’는 불교 문헌에 적지 않게 보이는 표현 방식이다. 현재 이 책을 볼 수 없어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려우나 ‘義疏’와 유사한 의미로 보인다.³⁰⁾

‘法門’은 현재에도 많이 쓰이는 용어이다. 본래는 범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원래는 법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 즉 덩어리란 의미지만 한자 문화권에서는 ‘入法門徑’이란 의미로도 사용된다. 『法界次第』의 전칭으로 보이는 『法界次第初門』의 문은 이런 의미의 ‘法門’으로 보인다. 한자 문화권에서 보이는 ‘法門’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사용되는 듯하다.³¹⁾

‘口訣’은 본래 도교 용어이다. 도교에서는 일반적으로 單傳³²⁾을 하고 秘傳을 한다. 그럴 경우 외우기 쉬운 요약문[訣]을 말[口]로 알려 주는데 이것이 본래 의미의 ‘口訣’이다. 단지 후일 ‘어떤 의미가 짧게 요약된 형태의 글’ 혹은 ‘외우기 쉬운 형태로 되어진 짧은 글’ 등을 ‘口訣’이라 부른다. 지자대사의 『禪門口訣』에서 ‘口訣’은 후자의 의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짧은 글을 ‘章’이라 부르기도 한다. ‘章’은 본래 노래 가사의 한 단락을 의미한다. 그래서 후일 문장 등의 ‘한 단락’을 의미하게 되었고 다시 ‘짧은 글’ 등의 의미가 발생한다. 즉 분량을 중심으로 불

30) ‘法華文句’를 ‘法華文句記’라고도 부른다. 왜냐하면 지자대사가 강의한 ‘法華文句’를 관정이 ‘記’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자대사가 강의한 ‘法網經(의)義’를 누군가 ‘記’하였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다.

31) 현재에도 우리는 ‘法門’을 ‘說法’의 의미로 상용한다. 그리고 그 ‘法門’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면 ‘入(佛)法之門’으로 설명하는 듯하다. 만약 그렇다면 ‘法門’은 初級說法에 해당해야 한다. 단지 ‘법문’의 내용을 보면 초중고 등의 수준을 가리지 않고 ‘法門’이라 한다. 이것은 은연중 ‘法門’이 인도에서 사용되었던 본래 의미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한 사람에게 단독적으로 전수해 줌.

때 길지 않은 글을 지칭한다.

‘論’이란 이름의 문헌도 있다. 예를 들면 『觀心論』이다. ‘論’은 ‘論藏’에서의 ‘論’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즉 佛子가 불법에 대해 설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文心雕龍』에서 말하는 ‘論體’의 의미가 좀 더 농후할 것이다. 즉 一理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가 말하는 ‘論文’과 유사한 것이다.³³⁾

이 이외 ‘義’는 의리에 대한 체계적인 闡述이란 의미이다.

4. 結 言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자대사 저술명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는 문헌명에 대한 간략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다. 물론 확인까지는 좀 더 확대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1 ‘敎藏’ 別立之由

교장총목의 문헌명을 중심으로 보면, 불교 三藏의 입장에서 볼 때 論藏에 포함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념상으로는 이른 바 ‘東土著述’과 그 외연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注疏 등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摩訶止觀』, 『禪波羅蜜』, 『六妙門禪法』 등의 독립된 저술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은 물론 인도 불교와 무관하지 않지만 인도 전통과는 이질적인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문헌의 형식적 특징으로 보나 서술하는 방식으로 보나 인도의 전통과는 사뭇 다르다. 즉 중국 전통적인 특징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아마 이것이 이런 문헌을 따로 분류하여 정리한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즉

33) 왜냐하면 ‘論藏’의 ‘論’으로 보면 智者大師의 전 저작이 거의 다 論藏에 해당할 것이다.

‘敎藏’이 따로 성립해야 할 이유일 것이다.

4.2 書名由來

물론 위의 논의와 연결이 되지만, 書名の 유래 혹은 특징을 보면 인도의 영향이 라기보다는 중국 전통의 맥락이라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용어는 불교적이라기보다는 당시까지 儒學 등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襲用하거나 약간 變容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아마도 ‘註釋’이란 전통이 상대적으로 약한 印度보다는 매우 강한 전통을 가진 중국에서 생산된 것들이기에 그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문헌들을 저술할 적에 예상 독자층이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익숙하거나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방식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굳이 불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불교 4섭 중에 하나인 愛語攝이라는 방편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자면 인도 전통의 방식이나 불교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佛意와 相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3 包攝南北

이것은 敎藏 문헌명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지자대사 문헌 특징 및 문헌명에 관한 것이다. 남북조 시기부터 수당시기까지의 중국 학술계의 흐름을 보면 북조에서는 漢學이 강세를 보였고 남조에서는 義學이 성행하였다.³⁴⁾ 수나라가 통일하면서 결국 남조 義學이 남북학을 통합하기에 이른다. 이 경향은 唐代 이후까지 지속된다.

당시 불교의 상황을 보면 북조에서는 禪學이 주류를 이루었고 남조에서는 義

34) 漢學이 유행을 한 북조에서는 章句之學의 전통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義學의 전통이 강한 남조에서는 義疏 등 義理를 闡述하는 방식이 주류를 점하고 있었다.

學이 성행하였다. 지자대사는 남북조 후기로부터 수대 초기까지 활동하여 남북불교를 아우르는 통합불교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런 특징은 그의 문헌에서도 보여진다. 經學의 입장에서 본다면 章句之學과 義理之學이 모두 보인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義理之學이 보다 강세임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文句’와 ‘玄義’라는 방식은 이런 그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義疏’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 작품들과 捨經自作文 형태의 여러 작품들 예를 들면 天台三大部の 하나인 『摩訶止觀』과 같은 작품들도 있다.

이런 점은 문헌의 특징적인 면에서도 包攝南北의 기색이 역력하다. 더욱이 당시의 대세였던 義學의 北進이라는 시대적인 특징도 동시에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4 나가며

우리나라의 불교계에서는 ‘時節因緣’이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이 어휘는 매우 흥미롭다. 우선 두 개의 단어로 형성된 복합어이다. 즉 ‘時節’과 ‘因緣’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 글자씩으로 줄인다면 ‘時’, ‘緣’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 놓고 다시 이 단어를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다. 이 중 ‘時’는 유가적 특징이 농후한 단어로써 『周易』의 핵심이고 『中庸』의 중심이다. 그리고 ‘緣’은 불교의 핵심으로 釋迦如來로부터 證悟開示한 根本義이며 無始已來 본래 그러한 如如實相이다.

이 두 단어의 결합은 그대로 동아시아불교 특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단어의 조합처럼 동아시아 불교사도 그러한 듯하다.

본고이 작은 고찰에서도 한 시대 불교의 문헌명에서도 불교의 교리와 동아시아 전통의 흐름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아마도 시절인연 탓이리라!

한마디 덧붙이자면, 동아시아 불교는 항상 동아시아와의 흐름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불교를 불교 그대로 보아야 한다거나 볼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부처님 연기법과 相違甚遠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法華文句』 등. 龍藏本.

潘桂明. 『智顛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996.

星雲大師. 『佛光大辭典』. 高雄: 佛光出版社, 1988.

張寶三. 『五經正義研究』.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0.

丁福保. 『佛學大辭典』. 上海: 上海書局, 1990.

齊佩瑢. 『訓詁學概論』. 臺北: 華正書局, 民國78.

朱封鰲. 『朱封鰲天台集』 1-3集.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9.

[清]皮錫瑞, 周予同 注釋. 『經學歷史』. 北京: 中華書局, 1959.